

(100605 문수스님 조사)

弔辭

문수스님께서 원적(圓寂)에 드셨다는 갑작스런 부음(訃音)을 접하고 우리 종도들은 물론이고 이웃종교인과 온 국민이 놀라고 애통(哀痛)한 마음에 산 천의 초목마저 생기를 잃고 모두가 망연자실하였습니다.

스님께서서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마구 파헤쳐지는 우리의 산과 강을 바라보면서 당신 가슴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아프게 여기셨기에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닌 경지를 몸소 체험하셨을 것입니다.

그리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점점 더 깊은 고통의 늪으로 밀려들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할 뿐 그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자괴감(自愧感)은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승화되었을 것입니다.

3년 동안 산문 밖을 한 차례도 나가지 않고 하루 한 끼 공양만 하면서 참선 수행에 몰입하였으며, “이번 생에 기필코 진리를 깨달아 해탈하겠다”는 서원을 세우고 손가락을 태워 불보살님 전에 연비공양(燃臂供養)을 올렸던 심지 굳은 참선 수행자로 살아 온 날들이었습니다.

그러나 못 생명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공업 중생들이 아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짐짓 모른 체 하는 세상에 대한 연민심은 좌선 수행자로만 머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으려던 짐승을 위해 기꺼이 절벽 위에서 몸을 던졌던 전생의 부처님처럼, 울부짖는 중생들을 대신해 당신의 몸을 바친 것입니다.

스님과 같은 훌륭한 수행자를 제 자리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든 시절인연이 참으로 하수상하니 몸을 맡겨놓은 세 평 공간마저 버려야 했습니다.

스님을 떠나보내는 우리 종도들은 스님께서 온 몸을 태워 공양 올리신 그 뜻을

헤아려 세상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갈등을 푸는 데 모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.
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반야용선(般若龍船)에 올라 정토(淨土)세계
로 나아가게 만드는 도반이 되겠습니다.

스님께서 소신공양으로 일깨워주신 대로 종도들이 뜻을 모아 참회와 성찰을 위
한 108배 기도정진의 힘으로 세상의 온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
도 없게 하겠습니다.

문수스님!

열반(涅槃)에 드신 뒤의 일을 묻는 아난(阿難)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“진리를
등불삼고 스스로를 등불삼아 망일하지 말고 정진하라.”고 하셨습니다.

오늘 우리가 스님 열반 이후의 일을 묻는다면 스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
한 대중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렵니까?

문수 비구여!

위법망구의 공덕으로 이제 부디 편안히 가시옵소서!

불기 2554년 6월 4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焚香